

진중권의 세상보기



사자(死者) 명예훼손

결국 고(故) 김지태씨 가족이 박근혜 후보를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더 이상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곳의 이사장에게 물러나라 마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상할 수도 있다.

가령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물론 이상하긴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수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니,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이사장님께 이렇게 전화 드리게 됐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아는 한, 박근혜 후보는 아직 최필립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를 권유한 일이 없다.

가짜화견장에 나타난 박 후보의 태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외려 그들을 모욕하고 나섰다. "김지태씨는 4·19 때부터 이미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5·16 때 부패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법원의 판결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법원에서는 재산 헌납의 강제성만은 인정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제 와서 재산 환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을 뿐이다.

그녀는 인혁당 사건 때도 "두 번의 판결이 있었다."며, 인혁당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 그때도 물론 그 사건이 조작됐다는 대법원의 판결뿐이었다.

사실 인혁당 사건과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 나설 때마다 단골처럼

따라다니던 검증의 아이템이다. 기억이야 틀릴 수도 있지만, 하필 본인의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두 사건에 대해 박근혜 후보가 그처럼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한 마디로 그녀의 무의식에 깔려 있는 그 무언가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 후보의 정치철학이다. 그녀는 언젠가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치에 나섰다고 말한 적이 있다. 아마도 인혁당 사건에 대한 그릇된 기억은 10월 유신은 공산주의로부터 조국을 구하는 구국의 조치였다는 의식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정수장학회 판결에 대한 그릇된 기억은 5·16이 부패와 혼란에 빠진 나라를 구한 구국의 혁명이었다는 확신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 고 김지태씨는 부산일보의 사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군 사건을 보도하는 데에 공을 세웠으며, 자유당 시절에는 사사오

입 개혁에 반대하는 등 소신과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가 설사 과거에 친일을 하고 부정축재를 했다 하더라도, 감압적 방식으로 납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 행위이다.

비록 과거사에 대해 마지못해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박근혜 후보의 무의식엔 청와대 시절부터 세뇌된 3공의 이데올로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는 유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과해야 할 자리에서 외려 그들을 모욕했다. 이 공격성은 왜곡된 정치철학에서 나온 왜곡된 심상이 아니겠는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고칼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강상원

얼마 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어 재임하였다. 5년 전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 때도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 이번엔 재임에 성공한 것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고 또 재임하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흑인들의 바람과 희생이 바탕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마틴 루터 킹목사의 영향은 지대했다.

지금도 미국의 링컨 기념관 화장장 계단 위에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각판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기념관 1층에서

는 킹목사의 육성으로 같은 제목의 설교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다. 그 설교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였던 사람들의 후손과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후손이, 형제들이 앉는 식탁에 함께 앉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명의 아이들도 피부색이 아니라 개성에 의해 능력이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킹 목사의 이 꿈이 6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 흑인처럼 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뿐 아니라 흑인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탄생하는 도약을 이루어 냈다.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세대 갈등, 경제 갈등, 동서의 갈등과 남북 분

단으로 인한 이념의 갈등이 있다. 유독 선거철이 되면 동서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남북 분단의 아픔으로 인한 이념의 갈등이 고질적으로 국민들의 아픈 곳을 찌르곤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아픔을 끝내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흑인들은 노예제도를 없애고 흑인차별법을 폐지시키기 위해 킹목사의 주도하에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했다.

백범 김 구 선생은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에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네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나 김구

의 소원은 이것 하나 밖에 없다. 내 과거의 철심 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 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달하려고 살 것이다."

내에게도 간절한 꿈이 있다. 성경에 나오듯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 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처럼 가난과 학력, 출신으로 차별받지 않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는 꿈, 나아가 동서화합과 통일이 이루어져 더 험한 미래로 나가는 꿈,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리가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차기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킹 목사처럼, 김구 선생처럼 나라와 국민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할 사람,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할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면 좋겠다. (새빛교회 담임목사)

기고

중산층 복원되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조현권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 나들이도, 정겨운 가족과 외식도, 친구들과 한 편 영화 볼 여유도 점차 줄고 있다. 부지런히 일하고 벌어도 더욱 팍팍해진 삶, 운동 만나는 사람마다 살기 힘들다는 말 뿐이다.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 속에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이하인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중산층은 1990년대 75% 수준이었지만 2011년 말에는 64%로 떨어졌고, 최근 전국의 성인 남녀 전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중산층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46%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중산층의 위기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중산층의 위기는 20~30세대를 시작으로 20대는 실업, 30대는 가계부채, 40대는 자녀교육비, 50대는 은퇴 이후 소득 감소 등으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선을 통해 상처받고 지쳐있는 국민에게 '힐링 코리아'의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한편 하우스우수 있도록 세대별 특성에 맞춘 중산층을 복원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즉 20대에는 청년 일자리, 30대에는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감감방안, 40대에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 50대 이상은 정년 연장과 노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중간에서 중재하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중간층이 두터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위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한편 하우스우수 있도록 세대별 특성에 맞춘 중산층을 복원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즉 20대에는 청년 일자리, 30대에는 주거안정과 가계부채 감감방안, 40대에는 사교육비 부담 완화, 50대 이상은 정년 연장과 노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아동 성폭력, 문지마 범죄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 치안안정망 확충과 여성들과 임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정책, 최저임금현실화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사회복지 안정망을 구축하는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는 정책으로 국민이 원하는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얼마 전 정권을 바꾸고 싶은 국민보다 정치를 바꾸고 싶다는 국민이 더 많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정치 경험이 없는 초보가 상식만으로 정치를 하려고 해도 지지할 정도로 현실정치는 국민에게 많은 절망을 안겨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치를 바꾸는 정책과 중산층을 복원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의 지도자가 시대정신에 어울리는 철학과 비전, 정책과 방법론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시의회 의원)

운전 중 핸드프리 통화도 위험...사용 규제 필요하다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스티커가 발부된다. 물론 스티커가 걸리거나 아니라 운전 중 휴대전화는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절대 자제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서 운전중 불가피하게 통화를 하기 위해 핸드프리라는게 생겼다. 핸드프리는 잘 알다시피 운전이 크게 지장 받지 않고 통화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핸드프리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누구나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쓴다.

물론 이런 법적으로 규제대상도 아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핸드프리는 정말 운전중 안전한 것일까. 하지만 굳이 따져보자면 핸드프리도 아예 통화를 안 하는 것보다는 위험도가 높다. 즉 전화가 걸려오면 핸드프리도 결국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버튼을 누르기 위해 운전 이외의 동작을 취해야 하고, 운전중에도 말해야 하므로 그만큼 운전 이외의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운전이 방해되는 것이다.

얼마 전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승합차가 대형 트럭에 걸린 참사가 발생했는데 여기서 모두 11명이 숨졌다. 단일 자동차 교통사

고로는 너무나 큰 참사였다. 이 사고는 정밀 조사결과 휴대전화기 화근이었다. 트럭 운전자가 핸드프리로 통화하다 커브길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마주 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급기야 미국 연방교통당국이 50개 주에 공문을 보내 이어폰과 마이크와 같은 핸드프리를 이용한 통화까지 금지하는 입법을 권고하고 나섰다. 물론 당장 전 차량에 대해 핸드프리 사용 금지를 시킨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차량 사고시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트럭과 버스운전자에 우선 대상이었다.

그러자 미국 트럭협회에서는 그런 조치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교통당국

의 입장이 단호해 머지않아 핸드프리 통화를 금지하는 주가 미국에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안전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 정도면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게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자동차 사고는 일단 실수한 분인이 다치는 것보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애꿎게 목숨을 잃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통당국은 미국의 핸드프리 사용 제한 규정과 방식, 절차 등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기 바란다.

▲홍명호·광주시 서구 풍암동

시설

전대 총장 후보 이번엔 논문 표절 시비라니

전남대학교가 또다시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총장 재선거에서 각각 총장 후보 1, 2순위에 오른 지병문(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윤택림(의학과) 교수에 대해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들에 따르면 지난 10월17일 총장 재선거가 끝난 직후 지병문 후보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 문건이 교수와 언론사 등지에 우편물과 이메일로 전달됐다. 과장이 커지는 가운데 A교수는 지난 2일 지 후보의 논문 5건에 대해 표절 의혹을 밝혀달라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소했다.

지 후보에 대한 제소가 이뤄진 지 수 일 후, 이번에는 B교수가 윤 후보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같은 위원회에 맞제소했다. 두 후보 측 모두 대학 구성원들에게 성실한 해명을 하되 공격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대는 지난 7월 총장 선거 부정과

관련해 당선자가 사퇴하고, 총장직선제 폐지 여부로 논란을 빚으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도 재선거를 통해 1, 2위로 결정된 두 후보 측이 논문 표절 시비로 맞제소를 했더니 지성인 집단의 일그러진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후보자가 논문을 표절했다면 총장으로서 자격은 물론이고 사퇴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흠집을 내기 위한 시비라면 그 역시 교수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다. 따라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엄격한 잣대로 논문 표절 의혹을 가려야 한다.

과거 전남대는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지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그 명예와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그러나 지금 대학과 교수들이 지역민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전남대는 대학 구성원들의 충지를 모아 논문 표절 의혹을 포함한 위기 타개책을 찾고, 호남 거점대학으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여수박람회장 '빅오쇼' 재공연 차질 안 된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최고 볼거리였던 '빅오쇼'의 재공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9월 태풍으로 핵심시설이 파손된 데다 피해 복구 늦어지면서 당초 9월로 예정된 재개장이 반년 이상 미뤄지게 된 것이다. 폐막한 지 석달이 넘도록 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이 지지부진한 면이 재공연하기로 돼 있었다. 빅오쇼는 해상 위에 47m의 높이로 솟아오른 O자형 구조물 디오에 빛을 쏘아 환상적인 영상을 만들어내는 시설이다.

검은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화면은 색채의 빛으로 채워지며, 예쁜 소녀의 얼굴이나 무시무시한 괴물을 그려내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받았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폐막 이후에도 운영되고 있는 아쿠아리움 등과 빅오쇼를 연계하

기 위해 재공연을 준비해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9월 태풍 '산바'로 인해 지상 및 바닷물 속에 설치된 전기·기계 시설물들이 침수·파손되면서 재공연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다행히 주요 구조물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지만 전기 시설 등이 침수 피해를 입어 복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진 것이다.

조직위 등은 복구방법을 놓고 시설물 보합사인 A사와 협의 중이지만 복구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복구공사는 아예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조직위는 피해 시설물 전체를 교체한다면 복구비 140억 원을 요구한 반면 보합사는 이들 시설물을 수리하거나 재활용하면 복구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빅오쇼' 재개장 지연은 이제나 저제나 사후활용대책을 기다려온 지역민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다. 조직위와 보합사는 하루 빨리 빅오쇼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분재기(分財記)는 자손에게 물려줄 재산을 기록한 문서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분재기로는 고려 말의 것이 있지만 일반화 된 것은 조선시대 들어서다. 조선시대에는 웬만한 양반 가문이라도 하면 재산의 상속과 분배를 기록한 분재기를 남겼다.

경국대전 원칙에 따라 조선 중기인 17세기까지는 아들과 딸에게 차별없이 재산을 균등하게 분배했다. 분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논·밭과 집 등 부동산은 물론 노비도 포함됐다.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는 딸만 다섯을 두었는데 '장녀 사위 장인 우 처의 뉘' '2녀 사위 최 난수 처의 뉘' 등과 같이 사위의 이름을 병기했다.

신명화 사후, 용인 이씨 인희의 장녀가 딸이었던 이씨 분재기'로 불리는 이 문서를 보면 재산을 모실 손자 현룡(울곡 이이의 어린시절) 등 5명 삼성가가 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25주 추모식을 따로 치르면서 신명화를 받고 있다. 조선시대 평민층에 있는 집과 전답을 분배했다. 성리학의 거목 퇴계 이황도 분재기를 통해 6천석을 거두는 천석군이었고 367명

명의 노비를 거느린 재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황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과 함께 어머니와 두 아내, 며느리 모두 안동지역 명문사족의 규수로 광등하게 재산을 분배받아 그같은 부를 축적했다고 한다.

호남 가사문학의 원류인 민양정 송순의 분재기에서도 남녀 차별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송순은 140여명에 달하는 노비 이름까지 모두 기록해 6남2녀의 자녀중 장녀에게는 밭 120마지기

와 서당, 노비를 주고 차녀와 절의 아들 3명에게도 재산을 나눠줬다.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가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접입가경이다. 장남인 이병희씨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이 이

분재기(分財記)



건희 회장을 상대로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CJ·신세계 등 5명 삼성가가 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회장의 25주 추모식을 따로 치르면서 신명화를 받고 있다. 조선시대 평민층에 있는 집과 전답을 분배했다. 성리학의 거목 퇴계 이황도 분재기를 통해 6천석을 거두는 천석군이었고 367명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